

#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힘찬 출발

### 전남도교육청, 참가팀 접수 시작...국내외 500여 팀 선발 지원 민선3기 전남교육 핵심공약 실천 ‘학생 다양한 꿈 도전’ 제공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7일 오전 도교육청 2층 기자회견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참가팀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 원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일정 기간 실행·평가·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역량을 기르는 전남형 학생 중심 체험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협업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는 기존에 운영되던 선상무지개학교, 울곡 통일리더스쿨, 히말리아희망학교 등 대규모 프로그램을 대신해 추진된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팀 프로젝트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 팀에 3명에서 10명 내외의 학생이 멘토교사와 함께 진행한다.

오는 2월 7일까지 참가팀 신청을 받아 2월 중 심사를 거쳐 팀이 선정되면 3월 사전워크숍을 통해 계획서를 보완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국내외의 500여 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운영비와 컨설팅, 멘토교사, 후원기업, 지역사회의 인력풀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학생 활동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 참가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월) 목포에서 전남 서부권 홍보한미당을 성황리에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금) 오전 화순 하늬물 민연홀에서, 오후 순천 연향도서관에서 홍보한미당을 두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홍보한미당은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홍보영상 상영,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방법 설명 등의 내용으로 꾸며진다. 특

히, 지난 1차 홍보한미당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상상력 디자이너 이원빈을 다시 초대해 전남 중부권과 동부권 생들에게 ‘상상으로 일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포스트잇 붙이기와 질문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지며, 함께 작성한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도교육청은 향후 교사 및 다양한 분야의 멘토 지원단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홍보 동영상과 신청방법 등은 도내 교육기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는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진남교육 실현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다”면서 “학생 스스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활동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팀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 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나주교육지원청, 나주교육2019 설명회 유·초·중학교 교원 대상 4가지 역점사업 추진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춘기)은 18일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에서 관내 유·초·중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더 더하는 학교, 더 나누는 학생’ 구현을 위한 ‘나주교육2019’ 설명회를 가졌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올 한해 ‘비단고을 밝히려는 활성화’, ‘학생 자치역량 강화’, ‘나주형 마을학교 구축’, ‘비단고을 역사·문화지랑’ 등 4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나주형 마을학교는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나주 원도심과 16개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 및 지역민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농 교류 및 원·신도시 학교 간 연계 활성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올해는 도교육청 지정 1교(나주아이), 나주교육지원청 지정 자율마을학교 3교(예교왕곡, 이슬촌, 동피갈)로 총 4개의 마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 순천대 ‘제3회 교양교육 혁신 심포지엄’ 개최

순천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성치남)는 15일 대학본부 진리관에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교양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제3회 교양교육 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순천대 교양융합대학이 주관하고 ACE사업단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교양교육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국내외 대학의 교양교육 동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운 교양이카데미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대학 교육 개혁의 특징과 대응 과제-교양교육의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이어 배창유 순천대 생명산업과 학대학장이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형 교과목 휴배상의 개발, 정용화 순천대 생물환경학과 교수가 “융복합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 사례, 허희우 순천대 교양융합대학장이 “순천대학교 교양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허희우 교양융합대학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중소형 지방 국립대학의 교양교육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순천대학교의 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교양융합대학의 운영 방안 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수업 ‘폭망기’ 사례집에 교사들 관심 광주시교육청, 수업혁신사례집 ‘교사, 수업하다’ 발간

힘들게 교사가 됐지만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다. “자신의 장점을 적어서 내라”고 하면 학생들은 “저는 장점이 없다”며 어색해한다. 그러고는 학생들 스스로 상처받는다. ‘학생 자치’와 리더의 자세에 대한 수업을 했더니 “역시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답한다.

2019년 1월 이런 수업 실패 사례들이 공개모집을 통해 모여 책으로 나왔다. 공모 당시 명칭은 ‘수업폭망기’ 공모전. 최종 발간된 책 이름은 혁신수업사례모음 ‘교사 수업하다’ 초등학교 중등편이다.

사실 수업폭망기 공모는 2017년 8월 공모 시작 단계부터 SNS(페이스북)에서 화제를 모았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수업을 바꾸는 100가지 아이디어-수업폭망기’ 공모전. 최종 발간된 책 이름은 혁신수업사례모음 ‘교사 수업하다’ 초등학교 중등편이다.

포를 시작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교사들 사이에 입소문이나 서울·제주 등 전국 17개 시·도 각지 학교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도서 요청이 들어와 200부 넘게 판의 발송했다.

교사 수업하다엔 수업 실패, 그에 대한 개선, 수업혁신 등 100편의 실제 사례가 담겨 있다. 각 사례는 교사들의 ‘실황’, ‘나눔’, 학생과 교사의 동반 ‘성장’, 수업 ‘열력’이라는 4개의 주제로 분류됐다.

조인호 기자



## 보성교육지원청 Wee센터 마을로 찾아가는 상담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 Wee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지난 15일, 17일 양일간 결백면 능북마을과 벌교읍 고읍마을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을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로 찾아가는 상담’은 2017년 1월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방학동안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와 마을 주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마을로 찾아가는 상담’은 학생생활에 관심이 많은 마을을 추천받아 선정하였으며,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상담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어르신을 위한 건강 체조와 웃음치료를 병행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및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관계개선, 양육방법안내 등 개인 상담과 Wee센터 홍보 등으로 실시되었다.

백남근 교육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상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지역광범이벤트조직지원사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혁신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